

졸업을 앞둔 대학생들이
가슴을 죄어야 하는 취업철
이다고 보고 있다.

가뜩이나 바쁠수록
통하는 대졸여성의 취업부
은 올해 전기업체와 사
자용차로 각 기업들이 신
규채용인력을 감소할 움직
임이어서 더욱 좁아질 전
망이다.

따라서 여학생들은 남보
다 빨리 진로를 결정하고
그에 대한 치밀한 준비를
함으로써 남학생에 비해
많은 제약이 따르는 취업
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.
10월에 접어들면 각 기
업의 입사원사정수가 시작
되므로 이제부터 취업정보수
집에 심혈을 기울이면서
입사시험준비도 최종적인
점검을 할 때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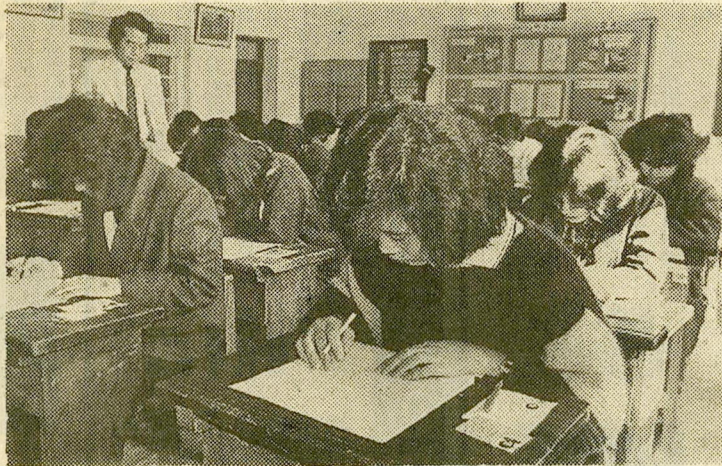
올 가을 대기업의 대졸여
사원 채용규모는 지난해
보다 더욱 줄어 들 것으로
보인다.

그래도 현대와 삼성, 력
기금성 등 대기업은 남녀구
분없이 똑같이 응시 기회를
주고 있는데 여성채용은 각
그룹마다 1백명선을 넘지

않을 것 같다. 재작년까지
학교의 추천을 거쳐 대졸
여성을 뽑았던 삼성은 지

취업門 더 좁아진다

大卒 여성



올해 대졸여성의 취업문은 더욱 좁아질 것으로 전
망된다. 새로운 분야의 개척이 필요할 것 같다.

대기업체들 경기침체 대비 100명線채용 정보수집 시험전략등 치밀한준비 서둘때

난해 남녀구별없이 공채를
실시, 70여명을 뽑았고 현
대와 럭키금성도 지난해
공채를 통해 1백여명을
뽑았다.
대우는 지난해에 이어
올해도 여성들만 따로 공
채를 실시, 11월초 1백50
명가량 뽑을 계획이다.
이밖에 포항철강제철한
국무연회도 하반기공채
를 할 예정인데 여대생에
대한 별도의 제한을 두지
않을 예정이다.

을 충당하지만 수시로 학
교에 추천을 의뢰하는 경
우도 많으므로 정확한 정
보가 필요하다.
취업정보가 부족할 경우
취업정보기관을 방문, 상담
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. 대
표적인 곳으로 노동부의
전문인력 취업정보센터(☎
2986) 한국경영자총협
회의의 고용서비스센터(☎
0886) 한국여성개발원
의 무료직업안내소(☎72
40) 등이 있고 「리크루트
취업정보센터」(☎492
1) 같은 전문업체도 판을
수 있다.

전문인력취업정보센터의
鄭大淳씨는 「여성이 취업
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
채준비를 착실하게 대기업
에 응시한 다음 안일정우
중소기업들을 노략하는 것이
순서라고 말한다. 중소기업
에서는 취업정보센터등
에 구인을 의뢰하는 경우
가 많으므로 이곳에 소정
양식을 내놓고 있으면 기
회가 될 수도 있다.

한편 최근들어 여학생의
광고대행사등이 여성들의
인기중심으로 부상하고 있
는데 채용인원이 많지는 않
다. 이밖에 리셉니스트
중합비서, 어패럴매천다이
저들이 신종유망직종으로
떠하는데 무수인을 하는 것
인지 정확히 알아보고 준
비하는 것이 필요하다.

특히 컴퓨터관련직종은
아무리 보수성이 강한 기
업이라도 여성에게 개방돼
있다. 과거에는 소프트웨어
어 프로그램머로서의 채용
에 머물렀으나 최근 컴퓨터
터의 보급이 확산되면서
여성들도 프로그램머뿐만
아니라 시스템엔지니어분
야에까지 진출하고 있다.

수면면과 조연면노를 금
昌培씨는 「지난해 남도고
용평을 앞 시험이후 여학생
들에게도 응시 기회는 많아
졌으나 실제로는 기업들이
내부적으로 까다로운 기준
을 두어 채용규모는 달라
진 것이 없다. 「그러나
여학생들의 취업문제가 해
마다 다양해지고 있다. 새
로운 분야의 판지를 갖고
개척해보는 것이 바람직하
다고 말한다.

〈金昌培기자〉

담당 金鎮天대리 「여성이
라고해서 공채때 다른 기
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
며 남자와 같이 의욕이나
기업인생을 중점적으로 보
며 시험과목도 남자와 같
다고 말한다.
일반대기업 이외에도 여
학생이 진출할 수 있는 분
야는 초중고교사 공무원
국영기업체 공공기관 금융
기관 언론계 외국상사 항
공사 등이 있다. 이들 기
관 대부분이 공채로 인